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전체기간(Lifetime) 부도율(PD) 추정 강화

대손충당금 산정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여신(이하 'Stage2')에 적용하는 전체기간(Lifetime)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해야 하는데도,

은행은 2023.6월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비소매 익스포져의 전체기간 PD를 개선한 결과, 일부 신용등급의 만기 1년 PD와 만기 2년 이상 PD가 동일하고 전체기간 PD가 개선 전보다 하락하는 등 전체기간 PD를 불합리하게 추정하였음

* 은행연합회「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개정(2023.6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PD 등을 개선

따라서 은행은 전체기간 PD 추정시 기간별 실측부도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등 전체기간 PD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 미래전망 예측모형 적정성 강화

은행은 과거 실측부도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미래 거시경제 시나리오별로 PD를 추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PD (이하 '예측PD')를 대손충당금 산정에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20XX.XX월 이후 저금리, 코로나 금융지원 등으로 낮아진 실측부도율 자료를 통해 예측 PD를 추정하면서 IMF 시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기업 차주의 PD 수준이 20XX~20XX년 실측부도율보다 낮게 추정되는 등 은행의 예측PD가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예측PD 추정시 은행의 과거 손실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측부도율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예측PD와 실측부도율과의 비교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코로나 만기연장 여신에 대한 추가충당금(Overlay) 적립 강화

은행연합회「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에 따라 은행은 기존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통해 산출한 손실위험이 코로나19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여신 등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

은행은 2023.6월말 기준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중 Stage1여신을 Stage2로 하향 조정하면서 추가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Stage를 하향조정하였음에도 전체기간 PD의 만기별 PD 증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등 만기연장 차주의 부실위험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코로나 만기연장 차주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시 Stage 조정,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등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으로 이연된 취약 차주의 부실위험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람